

<시선유희>
류민지, 한황수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2023.10.18
18:00 ~ 19:00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팟캐스트 링크

podbbang.com/channels/14065/episodes/24800599

김인선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의 2 인전 <시선유희>의 류민지 작가와 한황수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민지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류민지입니다.

한황수 : 안녕하세요. 한황수라고 합니다.

김인선 : 이름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황수 작가님은 저희 갤러리에서 실장님을 겸직하고 있죠. 저희와 함께 10년 넘게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어렸던 인턴 시절부터 차곡차곡 저희 공간과 함께 하고 있는 작가님이기도 하세요.

이번에 류민지 작가님과 같이 2 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작가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류민지 작가님은 1988년생이세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화 작가라고 인사하셨고요. 홍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학교에 강의를 나가서 저희 클래스에서 수업을 같이 들으셨던 학생이시기도 했었죠. 작가로서 저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2019년에 위켄드에서의 <Moving shapes>전, 2018년 가변크기에서 <Starry, starry> 등 개인전과 2022년 미스터고트에서 <류민지 표영실 2 인전>, 2021년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축적된 자리>, 2019년 무중력시대 무악재에서 <식물 x 세계> 등 단체전에 참여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한황수 작가는 1989년생이에요. 보도자료에는 사진 작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짚어보도록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사진 매체를 다루긴 하지만 여기 작업들은 사진이기도 하면서 그래픽 이미지이기도 하면서 텍스트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진 작가로 분류했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0년과 2016년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17년도에 수애노 339에서 개인전 <Are you gentle?>, 2016년도에 수원에 있는 대안공간 눈에서도 개인전이 있었고요. 2022년도에 CICA 미술관에서 그룹전에 참여했고, 2020년도에 토탈미술관에서의 <사랑의 기술> 컬렉션 전시회, 그리고 2014년도에 파리에 있는 메타노이아 갤러리에서 단체전 참여하셨어요.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들의 본격적인 작업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류민지 작가님은 회화 작가입니다. 어떤 작가인지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류민지 : 제 작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살면서 특별하지 않은 순간들이나 항상 옆에 있던 평범한 것들이 조금 다르거나 특별하게 마음에 박히는 순간이 왜 생겨나는 걸까 하는 질문에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어떤 미적인 요소와 추상적인 요소가 저희가 만들어내는 예술만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과 일상에도 다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적인 것들이 눈앞에 튀어나올 때 그 순간을 더 주의 깊게 감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주관적으로 미적인 감각인 거죠?

류민지 :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와 대상이라도 어떤 날은 눈에 들어오지만 어떤 날은 아무 감흥없이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데, 특정 순간에만 생겨나는 세계와 공명하는 것 같은 기분과 감각들을 잘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론으로 그 순간을 사진 찍어 두거나 비슷한 주제를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그 순간을 잘 기억하고 기억을 떠올려서 그리는 드로잉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감각했었는지 스스로 알아보는 과정으로써 드로잉 연작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풍경이나 특정 소재와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는 과정이 대상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회화적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순간적 감응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인데 보통 우리가 반복해서 보다가 언뜻 이게 나한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하죠. 작가님은 처음 보는 또는 여러 방향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다가 특정 순간에 그날의 감정 또는 그날의 기분에 의해서 본인한테 들어오는 감정의 찰나가 더 중요하겠네요.

류민지 : 네, 사실 그 순간이 특별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지 같이 오히려 너무 색다른 곳에 가서는 생소하기에 감탄을 하기도 하지만 작업의 소재로 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작업의 시작이 되는 순간들은 일상인데요, 이게 이런 형태였고 이런 모양으로 내 앞에 지금 보이고 있네라는 평범한 그림자나 풍경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되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색깔과 이런 그림자 라거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어떤 존재감을 순간적으로 느끼고 나면 다음 날에 다시 보는 경우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그게 지속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기억과 느낌이 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정 순간이 고정 되었다기보다 제가 받아들인 여러 순간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선 : 순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워낙 익숙한 장면에서 색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본인의 감정에 그날의 상태나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황수 작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사진 매체를 다루고 있는 작가이지만 일반적인 사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스트레이트 포토라고 하죠. 류민지 작가에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익숙해진

것이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새롭다 내지는 감정적으로 뭔가 동화가 된 어떤 지점에서 캐치가 된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보통 사진을 하는 작가님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들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황수 작가같은 경우는 다른 식으로 사진을 다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작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황수 : 전공이 사진이라서 저도 사진을 찍기는 찍는데요. 찍으면서 하는 행위가 곧 관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걸 찍어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부터 해서 관찰을 많이 하는데, 공간이 됐든 사물이 됐든 관찰을 하면서 찍고 나서 바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후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맥락이 아니라 어떻게 요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찍어야 될 대상이나 오브제들은 제 주위에 있거나 아니면 저와의 관계에 있는 어떤 곳에서 나오는 사물들, 공간을 찍고 있는데요. 촬영을 하고, 해체를 하고,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거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배울 때 1 차적으로 사진은 프레임 안에서 무언가를 제거하는 행위라고 배웠고요. 그림은 프레임이라는 예를 들면 직사각형 안을 채우는 걸로 배웠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사진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하곤 하는데요. 사진의 과정보다도 그림의 과정을 조금 더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트레이트를 안 하냐고 물어본다면 스냅이나 다큐멘터리나 구성, 아니면 모델을 채용해서 연출을 하거나 하는 사진이 저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찍고 난 후에 그거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작업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선 : 이 두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시선이 각각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내 화면 안에 가지고 들어올 때 이 대상을 보는 시선이 둘이 공통적이면서도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상을 향한 시선, 태도 이런 것들이 다른데 특히 이번 전시에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소재인 대상에 대한 생각 이걸 먼저 각각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전시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류민지 : 이번 전시에서 저는 제 작업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주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 소재만 있는 것은 아니라 이전에도 이어오던 나무를 그린 그림도 있고 나무 그림자가 있는 아파트 벽이 있는 그림도 있는데요. 창문 밖의 풍경을 그리게 된 이유는 이전의 드로잉 작업이 제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최소한의 수평선만 긋는 형태로 가능한 그림이 어떻게 풍경화가 될까하는 고민에서 연결된 작업이었어요. 수평에 대한 고민에서 그림 화면을 수직으로 분할할 때 가능한 풍경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창문의 창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창틀은 제 눈앞의 공간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것이지만 창을 열어 실제와 맞닿을 수도 있고 유리창이나 방충망 등은 그 기능을 떠나 눈을 가리면서도 밖을 보게 하는 조형적 요소로 보이게 되었어요. 창 밖을 보는 일 자체가 제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시간인데, 먼저 긴 유리창이나 방충망이 회화에서의 레이어같은 기능을 한다고 느껴졌고 실재를 바라보고 있지만 무언가를 건너서 바라보기도 하고 벽에 막혀 있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바라보기가 혼재된 장면이 회화적 형식으로 발전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창 밖 풍경을 소재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나무가 있고 나무 그림자가 비치는 그림은 실재가 있고 실재가 만든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가 비춰서 생겨난 형태들이 여러 바라보기가 섞인 장면이기 때문에 창 밖 풍경과 나무를 연구했던 작업들을 연결해 주는 작업으로서 전시 구성에

적절하다 생각되어 지금의 작업들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김인선 :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전의 작업들이 이렇게 수직적인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종이에 드로잉 형식으로 반복해서 같은 장면이지만 초반에 얘기하셨듯이 기억을 해내면서 같은 풍경을 반복해서 그리되 색감이나 분위기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100 점 정도를 그렸었잖아요. 수평의 풍경이었었고 지금 저희 공간에 와서 보시면 수직선이 계속 보여요. 창틀을 보여주고 있는 수직의 느낌도 있지만 비가 내리는 장면, 창 밖을 보면서 창이 나뉘지는-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 유리창이 또 분할이 되잖아요-그런 데서 발생하는 수직의 느낌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전의 작업과 지금의 작업에서의 변하고 있는 풍경에 대한 시선의 장치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황수 작가의 사진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대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황수 : 지금 <시선유희> 전시에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전공했지만 사진 이외의 것들을 다뤄본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첫 개인전 때 (무조건 내가 이기는 게임) 저희 집의 있던 0.7 평짜리 화장실을 촬영해서 시트지로 길게 늘어뜨려서 갤러리의 한 공간에 화장실을 가져왔었어요.

김인선 : 그 전시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화장실이 0.7 평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좁겠어요. 방배동의 저희 공간에 4~5m 정도 되는 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공간으로 집어넣되 이미지가 늘어지는 거죠. 이미지를 시트지로 재료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압축되었던 공간을 완전히 펼쳐내는 방식이었죠.

한황수 : 네. 좁은 공간을 찍어서 넓은 곳에다가 펼쳐놓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면서 늘어뜨려지는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영화 3 편의 캡처 장면 1,500 여장의 직사각형의 프레임들을 한 물결처럼 만들어가지고 벽면을 채운 전시(‘환상적인 부수물’ 2016)도 있고요. 아니면 2020 년도 윌링앤딜링에서 전시할 때(‘wheel and deal’)는 윌링앤딜링의 인스톨레이션 뷰를 제가 주로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10 여 년 동안 쌓인 인스톨레이션 뷰에서 당시 작가님들의 작업이나 전시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제외한 채 새로운 공간 이미지를 만들었던 작업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미지적인 작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글을 써요. 테스트 작업을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흔히 말하는 싸이월드 감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글들을 쓰는 걸 평소에 좋아했고, 텍스트 작업으로는 직접 쓴 글로 자막을 넣고 제가 읽은 애니메이션 영상이라든지, 폐자동차 위에 텍스트와 음악을 깔아서 흘러보내다든지 하는 식으로 텍스트에 관련된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봤는데, 그게 이번 전시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본 것 같아요. 이미지 반, 텍스트 반 식으로 비율이 1 대 1 로 떨어지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류민지 작가님이 자신이 본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전시되어 있는 저의 이미지들 안 내용물들은, 제가 연애하고 동거를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요, 2 년 전에 동거를 시작하면서 저와 관련 없었던, 제 인생에 필요 없었던 물건들이 쓰레기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배우자한테서 나오는 쓰레기들, 예를 들면 현 배우자가 키우던 고양이들과 같이 합쳐지면서 고양이에 관련된 쓰레기나 물건들이 버려지기 전에 작은 스튜디오에서 접사 촬영을 해 두고요. 다음에

제가 촬영한 물체의 이름을 필두로 글쓰기를 시작해요. 일기 혹은 에세이같은 글을 썼는데 제가 힙합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라임을 맞춰가면서 쪽 써내려가다가 재밌는 단어나 생각지 못했던 단어가 나오면 이전에 접사 촬영을 했던 그 사진들로 돌아가서 재밌다는 단어를 형상화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죠. 디지털 프로세스인 포토샵을 이용해서 조합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만든 이미지와 거기서 나온 텍스트들 그 두 개를 같이 전시 한 겁니다.

김인선 : 텍스트를 항상 같이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본인이 랩처럼 읽으면서 녹음한 영상 작업이 있기도 했었고요. 글쓰기를 워낙 좋아해서 실제로 어릴 때부터 틈틈이 글을 쓰는 것을 습관화했던 작가입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들을 읽어봐도 리듬도 느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은 그런 글들이 무의식적으로 뱉어내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마음에 드는 텍스트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한황수 : 지금 화면 뒤에 하늘 색 작품이 있는데요. 저 이미지가 프라이팬으로 만든 물파스인데요.

김인선 : 프라이팬 사진이 원본이고 그것들을 합성해 물파스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한황수 : 네. 저 작품에 해당하는 글이 있는데요. 리듬감은 빠고 읽겠습니다. "팅탕 프라이팬으로 탁구치는 소리 텅텅 빈 통통배 갑판 고치는 소리 텅텅탱탱 통통 부은 통통한 배 치는 소리 텅텅탱탱 같으면서 다른 소리 텅텅탱탱 땡땡 문 앞에 놔두고 벨 눌러주세요 우리 민족이 내는 소리 땡땡이가 꼬리 흔들지만 니 앞에 놔어도 네 건 아니야 통통 부운 짜장면을 이제는 왼손으로 먹어야 해 땡땡 부운 인대 늘어난 오른 팔목 봉대에서는 스멀스멀 물파스 스멜이 올라오네"

김인선 : 잘 썼네요!

한황수 : 처음에 프라이팬이라는 단어를 첫 줄에 쓰고 '팅팅탱탱' 이걸로 라임을 맞춰 내려가다 보니 저런 글이 되었습니다.

김인선 : 여기에 돼 있는 설치 자체가 이미지와 텍스트를 서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데, 설치를 하면서 작가가 의도했던 거는 이미지 바로 옆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놓고 싶지 않아 했어요. 직접적으로 시와 함께 있는 부수적인 이미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걸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따로 떨어뜨려 놓은 설치 방식이에요. 이미지와 연결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처음의 단어와 그 다음에 이 프레임 크기죠?

한황수 : 네.

김인선 : 이미지 크기와 텍스트의 면적을 일부러 같은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새우 이미지가 여기 같은 크기의 면적을 차지하는 텍스트를 연결하는 식으로 숨바꼭질 하듯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텍스트와 이미지를 붙여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해보면 좋겠는데요. 류민지 작가님은 이번에 전시한 이 장면들이 다 아크릴로 그리셨죠. 초반에는 유화로 작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의 작업과 지금의 작업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또 바꾸면서 어떤 부분의 표현이 더 용이하고 더 맞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재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류민지 : 지난 전시까지만 해도 간간히 아크릴로 작업 할 때는 있었지만 거의 유화를 사용했었고 학부 때부터 유화를 좋아했었어요. 많이 좋아하는 재료여서 유화 대신 아크릴로 작업 해야지라는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었는데 아크릴을 작업에 주로 가져오게 된 계기가 있게 되었어요. 지금 전시장에도 있지만 A4 가 조금 넘는 크기의 종이에 제가 바라본 순간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린 드로잉 연작을 기록용 혹은 회화의 재료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하는 작업인데, 수평선에 관한 풍경을 드로잉으로 진행하면서 기존처럼 대상의 형태를 그리는 것과 다르게 화면을 분할하고 면을 넓게 채우는 작업이라 조금 더 유연한 재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종이에 기름을 마음껏 먹일 수 없으니까, 물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의 터치가 가능한 재료가 필요해지면서 아크릴로 드로잉 연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회화 작업도 초반엔 유화로 진행을 하다가 아크릴로 하는 드로잉을 100 장 정도를 진행해 보니 아크릴만의 장점이나 편리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회화 작업도 좀 더 연구를 해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점 때문에 다른 재료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화와는 다르게 물을 기본으로 하지만 여러 미디엄을 통해 더 다양한 질감과 두께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느꼈고, 질감에 대한 관심과 지금 진행하는 소재가 어떤 대상에서 풍경으로 넘어온 만큼 아크릴을 이용한 연구가 적절하겠더라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작업에서는 티가 잘 안 나는 부분이지만, 빨간 빛깔, 노란 빛깔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한 가지 물감을 사용한 고정된 색으로 보이기보다 여러 색상이 겹쳐졌는데 그게 어떤 색으로 보인다 같은 미묘한 색감으로 그림을 구성하고 싶다는 욕심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색을 많이 겹치면서 그리는 편인데 유화를 사용할 때는 건조 시간이 고민이었는데 아크릴을 사용하니 시간도 빨라지고 물감을 겹쳐 그리는 일을 연결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회화 작업을 진행할 때 더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빠져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었어요. 유화는 겹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리다가 뒤로 물러나야 하거나 다음 날, 며칠 뒤에야 그 감정으로 다시 빠져 들어야하는데 아크릴 작업에선 딜레이가 사라지다 보니까 속도와 별개로 제가 그림을 쉽게 조절하고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림 개수가 늘어나는 편리함도 있지만 그릴 때 빠졌던 감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느꼈습니다. 초반에는 특유의 가벼움과 미끈거림이 어렵기도 했지만 1년 반 정도 재료에 익숙해지면서 최근에는 아크릴로만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원하는 효과들에 익숙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김인선 : 실제로 작업실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얇고 묽은 물감을 겹쳐가며 그리더라구요. 아주 얇은 붓으로 여러 번 색을 올라가면서 두께를 내는 색의 깊이감을 내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겹쳐가면서 올라오는 다양한 색의 얼룩이 보이는 작업들이 있는데, 초록 톤의 작업이 있으면은 그 초록 톤 안에서 많은 색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하늘색, 살색 등 다양한 색이 겹쳐지면서 신비로운 화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맑은 날의 하늘이나 풍경 같은 걸 보시면 단순히 푸른 하늘 느낌이 아니라 많은 색깔이 섬세하고 미세하게 겹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투명도를 주면서 겹치는 느낌이라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많은 색감의 조화로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보게 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얇은 두께로 발라가고 그 얇은 두께가 쌓여가는 시간이 단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품과 전시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릴 거는 유행이 지난 얘기이기도 한데 작가님들의 MBTI 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은 2 인전인 데다가 이 두 작가님이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른 게 있는데 각자 제가 몇 년 동안 봐왔던 작가님들이라 느껴지는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 MBTI 를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런 성향 아닐까라고 짐작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작품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가 있거든요.

한황수 : 선생님이 미리 물어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ENFP 입니다.

김인선 : 제 예상하고 다르네요.

한황수 : 약자 하나하나 뜻을 보니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배우자도 맞다고 하니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서 특징을 몇 개 봤어요. 즉흥적이다. 마음에 들면 몰빵한다. 공감과 소통 능력이 좋다. 호불호가 명확하다. 호기심은 많지만 지속성이 약하다.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저랑 좀 맞는 것 같더라고 생각했어요.

김인선 : 얘기를 하니깐 일부는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다르다 생각한것은 한황수가 다른 이의 방해를 받는 걸 안 좋아하면서 자신에게 몰두해서 일하는 스타일이고, 저보다 훨씬 냉정한 명이 있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옆에서 늘 단호하지요. 그런 걸 항상 봤기 때문에 T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항상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계획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J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들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즉흥, 몰빵, 공감, 호기심 등 그러나 지속성이 크지 않다. 이런 거요.

한황수 : 단점을 지속성밖에 안 써 왔긴 하지만.. 작업과 연관을 시켜보면 제가 한 번 했던 작업을 시리즈로 연결을 잘 안 하거든요. 다른 걸 또 찾아요.

김인선 : “새롭게 시리즈를 하나 만들고 그것에 대해 발전시켜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라 대답하는걸 보니 이것도 맞겠네요. 류민지 작가님은요?

류민지 : INTP 요. 어때요? 많이 다른가요?

김인선 : 워낙 꼼꼼하셔서요. 정현두 작가님과 얘기하는 걸 보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고 해서 J 인줄 알았어요.

류민지 : 아주 P 에요. 작업할 때도 안 그리고 한참 쳐다보다가 그리게 되면 밤에 몰아서 그리기도 하고...

김인선 : 이렇게 저의 예상이 빗나갈 수가... 어쨌든 작업을 보며 생각한 저의 해석은 뭐였냐면 류민지 작가의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화면을, 그러니까 창을 통해서 바라본 풍경을 그리되 그 풍경 안에 본인을 계속 개입시킨단 말이에요. 본인의 기분, 날씨, 본인의 상태, 환경 등에 의해서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을 그렸던 이전 시리즈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날씨나 본인의 기분이 계속 개입이 되고 동화되면서 화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풍경인데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의 고정돼 있는 장면에 대한 레이어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어들이 중첩되고 다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레이어들을 그려내고, 그것이 다 모아져야지만 온전한 풍경이 된다고 보게 됩니다. 많은 레이어들이 내재돼 있다는걸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대상과의 동화를 하는 그런 류의 F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황수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작업들이 지금의 와이프가 사용했던 물건인데, 용도를 다한 버려지는 물건으로서 철저하게 그 물건형태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텍스트 안에서 나온 이 단어를 아무런 기능이나 히스토리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형태로부터 옮겨온 거죠. 와이프의 팔레트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팔레트가 새우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형태만을 향해서 가는 느낌을 받아서 T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암튼 두 분의 MBTI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MBTI를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네요. 예상이 뒤집히지 않았으면 조금 식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한명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가 동화하거나 다른 한명은 그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른 것들로 변형시키는 부분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다루는 태도 자체가 또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2인전을 하면서 느꼈어요. 제가 비슷한 류의 작업을 같이 놓는 전시를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는 않는데, 이 두 작가님이 형식도 다르고 대상을 파악하는 게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보여주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각자 개인전 경험이 있으시고 여러가지 기획전에도 참여해 보셨지만 2인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했던 지점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류민지 : 사실 앞서 작업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 것처럼 저는 기억을 떠올려서 그리는 드로잉이 있고 그것 이후 혹은 동시에 진행되는 회화 작업이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전시에서는 드로잉들을 펼쳐서 벽에 쪽 걸었었고, 그 옆에 캔버스 회화 작업을 설치 했었습니다. 어떤 순간인지 확실하게 보이는 드로잉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드로잉도 있어서 제가 받아들인 기억의 성향 혹은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격차가 같은 크기와 같은 형식으로 소재를 유지하면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는 과정에서 그림으로 나오는 이미지와 기억 자체가 섞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회화에서는 더 추상적인 느낌으로 변하기도 하고 기억에서 불안정했던 부분에 어떤 조형적인 형식이 더해지면서 회화성이 생겨나가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이 드로잉과 회화를 어떻게 함께 보여줄지가 가장 고민했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행한 <Over the window> 드로잉을 공간을 차지해서 크게 설치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달력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넘겨가며 볼 수 있게끔 일부만 가져와서 설치했어요. 달력 형태가 되는 것도 드로잉이 기록에 가까운 것이라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림이기 때문에 벽에 걸렸을 때 감상이 더 수월하다 생각은 듭니다.

김인선 : 전시장 크기로 인하여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작은 드로잉들을 펼쳐서 봤을 때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즉각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걸 하나씩 넘겨야 해서 그런 감흥이 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공간의 조건에서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류민지 : 네. 그런 것 같아요.

김인선 : 관객들이 의자에 앉아서 넘겨보시면서 대화도 하시더라고요.

류민지 : 벽에 걸 수 있다고 해도 예전부터 거는 것 외에 다른 방식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형식을 꼭 해봐야 했던 것이라 생각해요.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가 해볼 수 있었던 좋은 실험인 것 같고, 나중에는 완전히 책 형태로 만들어 보거나 다른 방식을 고민해서 이렇게 걸지 않더라도 보여주는 방식은 계속 실험할 것 같아요.

김인선 : 한황수 작가님은 벽면 전체가 하나의 설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설치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한황수 : 어떻게 보면 류민지 작가님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인선 : 공간이 작아서...

한황수 : 공간의 크기보다는, 저도 사진 외에 다른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런 게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이 작업을 2021년부터 했던 건데요. 결국은 텍스트를 어떻게 보여줄 건지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에 김포에 있는 CICA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을 때는 이미지만 톡톡 걸어놓고 전시를 했었거든요. 많은 수의 그룹전이었기 때문에 이중에 일부인 4 점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는 누군가에게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직접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이미지만 쪽 보고 넘어가는 전시였기 때문에 그랬었죠.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보여주고자 했을 때, 처음에 생각은 책이었어요. 저희 첫 미팅할 때도 제가 책을 만들고 싶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미지는 걸려 있고 그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이 모여 있는 책 한 권이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걸 상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이미지랑 관련없는 류민지 작가님 작업 앞에 그 책이 돌아다니는 게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누군가가 연관성을 찾을까 봐요. 텍스트가 최대한 이미지 주변에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고민을 하다가 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면서 해결했던 것 같아요.

김인선 : 이 설치 방식이 마음에 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 전체 한 면의 느낌이 짜임새가 좋다는 의견들을 꽤 들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전시때마다 걱정하게 되는데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 특별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류민지 작가님을 오랫동안 봐왔던, 그리고 한황수 작가님하고는 꾸준히 교류를 해왔던 입장에서 이 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외부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현두 작가님에게 이 전시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떠냐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정현두) : 일단 류민지 작가님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동료라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으니, 새삼 몰랐던 부분들도 많네요. 아크릴로 재료를 바꾸면서 몰입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려는 장면에 따라 원하는 감정선이 다르고, 그 감정선에 맞추기 위해 감정을 조절한다고 들립니다. 그리고 MBTI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저는 MBTI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분명히 감정적으로 몰입을 한다는 건 MBTI에서 F의 속성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조차 실험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봤어요. 어떤 장면을 그릴 때 감정선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다른 조형 요소를 이끌어내고 싶은 것인가요?

류민지 : 감정을 조절하는 거 자체가 형식과 실험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라면, 드로잉 연작을 할 때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호라이즌 연작을 100 장을 그렸는데, 그 드로잉은 제가 작업실 입구에 서면 5 층인데, 창문도 없고 주변 건물은 전부 제가 있는 곳보다 낮기 때문에 앞의 골목을 내려다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2 층, 3 층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풍경이 올라오기 직전인 4.5 층에서는 다르게 다가와요. 그걸 꾸준히 바라본 지 5 년이 지난 뒤에야 이걸 그려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을 좋아하는 건 오래됐는데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은 꽤나 시간이 걸렸고, 그리기 시작했지만 아무리 저라도 같은 장소를 100 번 이상 그리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같은 이미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달라지게 그리니까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있었던 기억을 선명하게 그릴 때도 있지만 그 기억에 따라서 조금씩 제가 감정을 조절하면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저는 T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장면을 마주할 때, 동화하고 감명받게 되는 걸 자주 느끼고 그건 제 진심이긴 해요. 형식을 위해서 이게 그릴 만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일부러 빠져들지 않지만 어떤 눈에 박히는 것들이 있고 그 순간을 지나서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일부러 감정을 달리해가면서 형식에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드로잉에서 확실히 그렇고, 회화를 그릴 때는 대부분 제 머릿속에 점 찍어둔 기억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김인선 : T도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을 이용하는구나', '그걸로 실험을 하는구나' 이걸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정현두) : 한황수 작가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사진을 찍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직성이 풀린다고 하셨고, 한편으로 같은 형식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형식 실험이라는 건 본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곤 하잖아요. 작가님은 방법론을 계속 변화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변화를 하기 위해 작업을 한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변화의 동력 같은 게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한황수 : 일단 동력 두 글자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제가 윌링앤딜링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미대 회화과, 조소과를 나온 게 아니라 사진과 나온 사람이 한 갤러리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보는 광경이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구나를 느꼈고, 더군다나 윌링앤딜링이에서 실험적인 전시를 많이

했을 때부터 봤으니까 재미있는 작업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림이나 사진 말고도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많이 적용했고요. 제가 윌링앤딜링에서 첫 개인전을 할 때 저를 사진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오셔서 전시를 보시더니 '황수 사진 안 하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 사진을 물감처럼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 개인적 바램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는 예전에 한 큐레이터님이 그려셨는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관심이 많은 작가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새우를 만들었으면 이 새우는 바다 어딘가에서 자라고,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거를 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새우로 변했어요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떤 걸 변화시켜서 무엇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다른 장르를 끼워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김인선 :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갤러리의 수많은 작가들을 보면서 반응하고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동력을 얻어 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처음 해봤는데요. 질문을 주셔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황수 작가의 작업에서 계속 A 에서 B 로 바뀌는 이것들을 제목에서 반영했는데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안 했어요. 'C-U' 이런 식으로 이니셜로만 제목이 돼 있죠. 돌멩이 가지고 토끼를 만들어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돌멩이 이니셜과 토끼 이니셜을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다 밝히면 재미없을까요? 저 햄버거는 뭘로 한 거죠?

한황수 : 햄버거는 와이프가 벗어서 버린 화장품 묻은 마스크입니다.

김인선 : M 으로 시작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우산 이미지의 경우는요?

한황수 : 와이프가 커피 쪽에서 일을 했었어서, 집에 항상 커피 머신과 커피 캡슐이 많았어요. 그 커피 캡슐이 담겨져 있는 캔입니다.

김인선 : 그러면은 캔과 엠브렐라겠네요. 그리고 저 빨간색 저렇게 가방 모양 저건 뭘죠?

한황수 : 저는 탄산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집에 탄산음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건 펩시 콜라캔으로 만든 토트백입니다.

김인선 :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면서 텍스트까지 읽을 수 있지만, 오래 보셔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한황수 :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에 직관적으로 못 맞췄으면 좋겠지만 또 안 맞추고 지나가버리면 섭섭해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김인선 : 바로바로 맞추지 말라고 이니셜도 해놓고 텍스트도 여기저기 섞었는데, 어려운 것 같다고 하니까 작가님의 마음을 저도 모르겠네요. 뭘였지? P 라서 그런가?

류민지 :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저는 어떤 장면을 그렸는데 그대로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 또 흐릿했으면

좋겠는데 다 흐릿해서 뭐도 아닌 건 싫고. 회화적이고 싶은데 사실적이고 싶고 그런 건가요.

김인선 : 관객분들이 와서 작품<The cat by the window>에서 자꾸 고양이를 찾아요. 그러니까 제목에 캣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고양이는 어디에 있나요?

류민지 : 설명을 해줘야 보이는 거긴 해요. 제가 전시장에 있을 때도 관객분들이 오셔서 '이게 고양이네', '다른 그림 아니야?', '이거 맞는데, 어딴다는 거지?' 하고 가셨거든요. 고양이가 제 눈엔 보이고 설명을 해드리면 또 잘 보시긴 하시더라고요.

김인선 : 얘기들이 오가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미술이라는 게 사실적이고 잘 그리고 표현한 성격의 작업들도 있지만 내가 느끼는 나의 개인적인 뭔가를 드러낼 때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일일이 설명하면서 드러내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자체를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며 이 작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고, 이 공간에서 어떤 시선의 유희를 즐길 것이고 이 작가님들은 본인의 시선을 유희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다. 이것은 무엇이 그려져 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대상을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와닿는 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정현두) : 저 그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류민지 작가의 그림과 작가가 봐왔던 풍경을 많이 봤던 사람임에도 어디를 그렸는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어디를 어떻게 그렸는지 설명을 들은 뒤 풍경을 다시 보면 실제 풍경이 정말 저 그림처럼 보이곤 해요. 작가의 시선이 저한테 들어와서 풍경을 다르게 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시에 창문 시리즈 외에도 나무 그림들은 특히 모두가 보는 풍경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장면이 저 그림들을 통해 바뀌었듯, 나무와 같이 익숙한 장면을 바라볼 누군가의 시선도 작가님의 그림과 포개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또 말씀 들어보니까 한황수 작가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계획이 좀 궁금해졌어요.

한황수 : 지금 걸려져 있는 저 시리즈가 작품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텍스트와 관련된 작업들을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이번엔 벽에 붙였지만 제가 다른 소재를 찾아서 또 다른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의 테스트는 어떤 방법이 나올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인선 : 한황수 작가님이 원래 공대를 다니다가 사진으로 전공을 바꾼 거거든요. 그 계기가 책을 만들고 싶었대요. 본인이 글을 쓰면서 사진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책 한 권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저한테 10 여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으로 보여주기에는 공간의 동선도 그렇고 2 인전이라는 환경 안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책은 안 하고 텍스트와 이미지만으로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소망이 반영이 되면서도 충족도 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고자 했던 책의 포맷이라는 것을 앞으로 꼭

책이라고 하는 실제 물리적인 형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형식 안에서 소화할 수 있 시각적 장치들을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연구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의 디벨롭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민지 작가님은 안 기간은 좀 됐지만, 처음으로 전시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색이라든지 형태를 마주하고 감정을 끌어내는 섬세함들이 이 작가가 연구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더 큰 공간에서 스케일감 있게 작품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